

【특집】

## 불교의 경전 주해 전통과 그 방법론적 특징

조 은 수\*

【주제분류】 불교철학, 해석학, 문헌학

【주요어】 불교, 전통교학, 주석, 경(經), 론(論), 소(疏), 과판(科判), 과문(科文)

【요약문】 불교의 전통 교학은 문헌을 통해 전승되어 왔으며 이들 문헌들은 그 내용과 기술방식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뉜다. 소위 불설(佛說)을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經), 그리고 경에 대한 해설로서 독립적 저술인 논(論), 그리고 경과 논에 대한 분석적 주석서로서의 소(疏), 초(抄), 기(記) 등의 다양한 형식과 기술방식의 문헌들이 학문적 전통을 계승해 왔다. 불교는 주석 전통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론과 해석이 탄생할 수 있게 하여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에 역동성을 가져왔다. 한 경전이나 논서를 어떤 주석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파가 나뉘고 전통이 바뀌었다. 주석은 단지 경전에 대해 부수적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이론에 새로운 해석을 가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에 대해 도전과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불교의 주석전통에 대하여 원효와 기타 동아시아의 주석가들의 예를 들어 주석의 종류, 구조, 형식적 특성, 그리고 그 의의를 밝힌다. 나아가 주석서란 모호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전의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학문적 입장을 다른 이들과 차별화 시키는 수단이었으며, 수많은 주석가들은 이러한 복잡하고도 치열한 해석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문 전통을 구축해 나갔음을 밝힌다.

---

\* 서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 I. 들어가는 말

동아시아의 지식 전통에서 주석 전통과 그 전통을 담지하는 문헌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불교는 특히 2,600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주석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불교 교리에 대한 이론적 천착을 가리키는 교학 전통은 수많은 이론적 논서와 주석서들을 통해 오랜 역사를 두고 전승되어 왔다.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에서 나타나듯이 불교의 문헌 전통은 무려 팔만 여 장의 경판에 새겨져 전해져 올 만큼 그 양이 대단하며, 따라서 역사적 유구함과 문헌의 다양함 등의 이유와 더불어 고전 주석 전통 연구에 최고의 사례를 제공한다. 불교 문헌들은 그 내용과 기술방식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게 된다. 소위 불설(佛說)의 담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經), 경에 대한 주석으로서 독립적 불교 이론 저술인 논(論), 그리고 경과 논에 대한 해설적 주석서로서 소(疏), 초(鈔), 기(記) 등의 다양한 형식과 기술방식을 가진 주석서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그 학문적 전통이 계승되어 왔다.

이들 각종 경전들과 논서 들은 불교 지식의 전승의 장소(locus)로서 그리고 준거(reference)로서 기능해 왔다. 지식의 전승은 문헌의 저술과 유통,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고 문헌 속에 담긴 가르침과 지식은 새로운 내용의 지식과 해석이 등장함에 따라 재해석되고 수정되고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해석의 역사와 사상의 변이가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들 문헌이다. 주석 전통은 이 같은 복잡한 문헌해석학적 활동에 있어서 준거로서 작용하여, 주석을 통하여 문헌들은 대조 비교되고 검증되고 상호간에 교차적인 영향 관계가 발생해 왔다.

전통 교학에서의 주석 문헌들이 가지던 중요성에 비교해 볼 때 현대의 고전 연구에 있어서 ‘소(疏)’, ‘초(鈔)’ 등의 주석 문헌의 지위는

개별적이고도 독립적인 문헌으로서의 ‘논(論)’ 등의 논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불교학 연구에서도 ‘주석’ 문헌은 ‘논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지의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연구되는 텍스트로는 그의 『마하지관』을 들 수 있으며 이에 비해 그의 『법화경소』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중국 화엄종의 교학이나 법장의 화엄 사상 연구에 있어서, 그가 쓴 논서인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이 갖는 권위에 비해 볼 때, 그가 쓴 화엄경 주석서인 『화엄경지귀』 등의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는, 법장 자신의 화엄교가로서의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 주석서들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엄경에 대한 중국 불교의 학문적 해석적 입장의 일단을 알기위한 부수적 수단 정도로서 인용되며 연구된다. 즉 현대 학문세계에서 주석 문헌은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지 않으며 상위의 권위를 갖는 문헌을 해설하고 더 잘 이해시켜 주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로 격하되고 일차적인 문헌에 대한 이차적인 자료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 학문 세계에서는 주석이란 보조적 도구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지식 전통에 새로운 해석과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수단이었다. 특히 불교의 주석 전통은 불교 고유의 학문적 전통을 전승할 뿐 만 아니라 또한 변화시켜 나가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주석 문헌들은 수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드러내는 일종의 정형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의 학승들은 자신이 주석하는 문헌의 권위를 가탁하여 주석을 달고 있지만 그 속에서 교묘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불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문헌 중의 하나인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대하여 동아시아 삼국에서 수많은 학승들에 의해 무수한 주석이 씌어졌다. 우리의 『대승기신론』 이해는 이들 주석서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들 무수한 주석서 중 어떤 주석서를 통해 『대승기신론』을 읽는가 하는 그 선택 자체가 우리의 해석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 즉 『대승기신론』의 전통이란

궁극적으로는 그 주석들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문헌의 하나의 장르로서 주석 전통의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불교의 주석 문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주석서가 불교의 사상 전통에서 갖는 위치를 재평가해보고 한다.

## II. 불교 문헌의 역사와 종류

붓다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여 기원전 6세기에 인도에서 성립한 불교는 처음에는 그 가르침이 구술로서 전승되었다. 이것이 글로 기록되어 경전으로 성립되게 된 것은 붓다 사후 이백년 정도부터 이다. 이러한 불교 경전들은 팔리어 등의 인도 지방언어로 기록되었으며,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에 전래되기 시작한 1세기 경부터 경전들은 인도 언어에서 동아시아의 공통 언어인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되게 된다. 이제까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경전 번역의 노력은 그 후 5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유명한 번역가들의 협동 작업에 의해 국가의 후원 속에서 거대 규모로 진행되어 막대한 양의 문헌을 담고 있는 한역 대장경이 형성되기 시작한다.<sup>1)</sup>

흔히 불교 문헌을 총칭하여 삼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대장경이라고 동일시하나 두 가지는 성격을 달리한다. 우선, 삼장(三藏) 또는 트리피타카(Tripitaka)라고 불리는 것은 인도불교에서 시작된 용어로 불교 문헌을 그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여 총칭하여 부르는 추상적 개념이다. 경장(經藏, Sūtra-piṭaka), 율장(律藏, Vināya-piṭaka) 그리고

1) 불교 경전은 처음에 구술의 전통으로 전해짐으로써 문장 형태는 시적형식을 취하고 암송의 편의를 위해 특이한 운률법을 갖고 있었다. 인도의 언어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언어에서 번역되어 한역 대장경이 형성되면서 그런 음률적 요소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경전은 독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이나 주문으로서, 또는 마음의 집중을 이루기 위한 염불의 텍스트이기도 하므로 한역 대장경에서도 음률적인 측면은 계속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논장(論藏, Abhidharma-piṭaka)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간주되는 경, 그리고 승가의 구성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계율의 집성으로서의 율, 그리고 불교 학승들에 의한 학문적 이론적 저술인 논 의 세 항목을 지칭한다. 경과 율은 부처님의 말씀, 즉 불설(佛說)로 여겨지는 것이며 논은 그러한 가르침을 밝히고 해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개별 저자들의 독립된 저서들이다. 따라서 삼장이라는 개념은 한 곳에 실제로 모여 존재하는 컬렉션으로서의 문헌 군을 가리키기보다는 세 가지 종류의 문헌의 종합으로서의 불교의 권위적인 종교 문헌들을 추상적으로 지시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대장경이라는 것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성립한 용어로서, 이미 거대한 양으로 남겨진 불교의 실질적인 문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대장경은 한데 모아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문헌 군을 말하는 것이며, 어느 공간적 시간적 시점에 존재하던 텍스트들의 집합을 일컫는다. 따라서 삼장이라는 용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며 불교 발전의 역사 속에서 새로이 성립한 개념이다.

대장경을 흔히 캐년(canon)이라고 해석하지만, 캐년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권위나 폐쇄성과는 달리 대장경이란 상당히 유연한 개념으로 캐년이라고 번역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첫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장경에는 대승 불교의 이념을 싣고 새로이 찬술되어 유포된 대승 경전들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경과 율이란 붓다의 가르침, 즉 Buddha-vacana을 담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고,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如是我聞)”, 즉 “내가 이렇게 [붓다에게서] 들었다(*evaṃ mayā śrutam* …)”라는 구절로 시작하며 그 경전을 설하는 주체, 장소, 시간, 청중 등의 조건을 서문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대승불교의 흥기와 함께 찬술된 대승경전들이 기원전 6세기에 살았던 샤카무니 붓다의 육성을 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로, 대장경 속에는 삼장을 구성하는 경, 율, 론의 세 가지 분류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문헌들이 들어 있다. 경, 율, 논 뿐 만 아니라 소, 초 등의 각종 주석서, 역사서, 더구나 도상(圖像)들도 들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고려대장경

은, 경, 율, 론, 삼장 중의 경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야부(般若部)”로 시작하며, 『대품반야경(大品般若經)』 등의 경과 반야 중관 사상을 담고 있는 논서, 그리고 주석서들이 이 속에 들어 있다.

또한 대장경은, 교조의 가르침을 담고 있어서 고치거나 바꿀 수 없는 캐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캐년은 한번 만들어지면 고정성과 배타성을 가지는 것이나 대장경은 그 시작과 끝이 열려 있는 개방적인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의 가르침은 여러 언어로 씌어져 다양한 경로를 거쳐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번역되어 대장경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문헌 집단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에서만 여러 가지의 대장경이 성립되었으며 각각의 대장경에 편입되어 있는 문헌의 목록을 달리한다. 전통적으로 삼장이라고 불리는 경, 율, 논 의 세 가지 외에 후대에 제작된 논서, 주석서, 이론서, 역사서,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문헌들도 그 속에 편입된 종합적 불교 문헌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대장경은 현재까지도 그 목록과 종류를 달리하면서 각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sup>2)</sup> 이것은 대장경이 닫힌 텍스트가 아니라 열려있는 문헌의 총합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의 문헌 군들은 학술 전통이 일어나는 장소일 뿐이 아니라 그러한 학술활동의 전거(reference)로도 작용한다. 따라서 텍스트의 전통에서 비교, 교열의 작업은 그 정확성을 보장하기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대장경의 조성이란 단순한 판각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당시에 유통하던 수많은 경전들을 모아서 교열본(critical edition)을 만들고 하나의 세트를 결정하고 정의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 거대한 문헌

2) 예를 들어 현대적 의미의 활자판 대장경들은 현재에도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1930년대 일본에서 대정 연간에 만들어진, 대정신수대장경,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화대장경 등이 있다. 2006년 12월 중국 정부는 국가사업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한문판 표점 대장경, 이름하여 『신편대장경(新編大藏經)』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고의 선본(善本)들을 사용하여 현재 사용하는 대장경의 두 배 이상의 양이 될 것이며, 국가최대의 출판사업이 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해석학을 활동을 의미한다. 대장경은 당시 아시아 지식문화의 집성이며 실크로드를 통한 아시아 제국간의 활발한 지적, 문화적 교류의 결과이다.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한자 문화 또는 중국 문화만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 고려대장경은 편집과 교정의 정교함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한역 대장경 중에서 가장 정확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Critical edition을 만든다는 것은 지식의 준거와 전범을 만든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녀서, 흔히 고려대장경이라고 부르는 재조(再調) 고려대장경 편찬의 책임을 맡았던 수기(守其) 스님은 북송본(北宋本), 거란본(契丹本),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 등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고 교정하여 가장 완벽한 대장경을 만들고자 했다. 수기스님이 1247년 완성한 『고려국신조대장교정별록(高麗國新雕大藏校正別錄)』은 이 고려대장경의 교정 과정의 기록을 30권 분량 속에 담고 있다. 고대 동아시아 학자들이 수천 권에 달하는 경전의 내용을 어떻게 대조 및 편집하여 대장경을 탄생시켰는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수기 스님이 한권 한권의 경전들을 열람하면서 여러 종류의 경전 이본들을 비교대조하여 교정하면서 최종 본을 만들어 낸 과정을 서양의 본문비평학의 방법과 비교하기도 한다.<sup>3)</sup>

### III. 불교문헌의 역사에서 주석 전통의 의미

전통적 불교 교학에서 주석이란 보조적 도구라기보다 그것을 통해 지식 전통에 새로운 해석과 변화를 가져오는 수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불교의 경전 주해의 태도는 유교의 그것과 비교될 수 있다. 공자

3) 수기스님의 이런 노력은 성서를 편찬한 본문비평학의 비조로 불리는 에라스무스(1466-1536)보다도 2세기 앞서는 것으로, 그는 훨씬 더 유연하고도 정확한 판단력과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서 자신의 편집원칙을 적용하였다. Robert Buswell, "Sugi's Collation Notes to the Koryo Buddhist Canon and Their Significance for Buddhist Textual Criticism," *Journal of Korean Studies* 9-1 (Fall 2004).

가 자신은 이전의 성현들의 말씀을 조술한 것일 뿐이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이, 유가 전통에서의 주석은 조술(祖述)의 전통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물론 모든 유가의 주석이 다 그런 정신으로 쓰여졌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조술은 하지만 새로 짓지는 않는다(述而不作)”고 한 공자의 말에서 보듯이, 유교의 학술 전통에서 주석가들은 이전의 경전들이 말한 가르침을 조술함으로써 이전에 밝히지 못한 부분을 밝히는 보충하는 역할을 자임하였으며 이러한 조술의 정신은 유교 경전의 주석 찬술의 기본 정신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비해 불교의 주석은 대론(對論)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스승의 말씀은 존중하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분명치 않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에 도전하여 새로운 주석을 저술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종파적 불교의 대표적 예로 드는 화엄종은 특히 그 주석의 종류의 다양함과 치열한 대론 정신의 저술 태도로서 동아시아의 불교 주석 전통의 첨예한 사례를 보인다. 예를 들어 화엄종의 3조로 추앙되는 당나라의 법장(法藏, 643-712)은 그 이전의 두순(杜順)과 지엄(智儼)의 화엄학 전통을 심화 확대하여 무수한 논서와 주석 문헌들을 찬술하여 화엄종의 이론을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완성한 이론가였다. 그의 대표적 저술 중의 하나인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은 화엄종 교학 이론을 집대성한 것으로 불교 교학의 정제하고도 복잡한 이론 체계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화엄오교장』에 대하여 후대에 무수한 주석이 씌어졌는데,<sup>4)</sup> 이 중 대표적인 것으로 4대 주석을 꼽는다. 이 중 송나라의 관복(觀復)이 찬술한 『석신기(析薪記)』(현존치

4) 『화엄오교장』에 대한 주석서들이 가장 일찍 나타난 것은 송나라 때 이르러서인데, 그 이유는 당나라 말기 전란 중에 화엄학의 전적이 소실되어 학문적 연구가 나타나지 않다가, 송나라 때 고려에서 문헌들이 역수입되어 불교 교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성행하게 되면서 화엄학 문헌들에 대한 주석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주석의 전통이 특정 시대에 성립하고 융성하는 데에는, 주석되어지는 문헌의 한 시대에서의 인기나 영향력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특이한 역사적 사회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얇음)가 있다. ‘석신’이라는 말은 ‘장작을 켜다’라는 뜻으로 나무등걸을 잘라 장작을 만들 듯이 오교장의 가르침을 살살이 분석하여 쪼개겠다는 주석가의 의지를 상징한다. 또한 사회(師會)가 쓴 『분신(焚薪)』(卍續藏經 2.8.2)도 4대 주석의 하나로, 여기서 ‘분신(焚薪)’이라는 말은, 잘못된 견해를 담고 있는 문헌들을 모아 불태워 바로잡았다는 고사에서 취한 제목으로, 당시 여러 이설이 분분하여 학자들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을 한탄하고 바로잡겠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는 또 『복고기(復古紀)』(卍續藏經 2.8.3)도 썼는데, 『분신』과 마찬가지로 이전의 해석을 복고하고자 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당시 화엄종의 4조라고 불리는 정관(澄觀)이나 5조 종밀(宗密) 등의 화엄학 해석에 반대하며, 대신 이전의 지엄이나 법장 등의 옛 스승들의 정신을 가지고 주석을 쓴다는 것이다. 이 『복고기(復古紀)』에 대해 희적(希迪)은 『평복고기(評復古紀)』라는 주석을 썼다.<sup>5)</sup> 이상을 통해 당시 화엄학 이론가들의 주석 저술의 태도의 일단을 알 수 있다. 즉 불쏘시개를 잘게 쳐서 갈라보이듯이 철저히 분석을 가하고 명확치 않은 해석은 비판하여 태워버리겠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불교 주석 전통에 있어서 주석가들은 단순히 주석가가 아니라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이론적 도구를 갖춘 독립적인 학자였고, 그들은 이전의 문헌을 서술하고 조술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이론에 대해 도전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주석이란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대론(對論)이며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이었다.

불교의 주석 전통은 인도 불교의 초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불교는 그 역사만큼이나 오랜 주석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팔리 불전에 들어있는 *Mahākaccāna-bhaddekaratta Sutta*(한역으로 『가전연경(迦旃延經)』에 해당함)는 붓다 당시에 벌써 주석의 원형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의 전거로 사용된다.<sup>6)</sup> 이 경에서 화자인 *Mahākaccāna*는,

5) 이들 주석서의 존재에 대해 알려진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오윤희 소장에게 감사드린다.

6) K.R. Norman, *A Philological Approach to Buddhism, The Buddhist*

“붓다께서 짧게 말씀하시고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소로 가신 그 구절에 대해 나는 그 뜻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고요한 처소에서 홀로 수행하는 수행자의 이상에 대하여 붓다의 의도를 해설하고 있다. 인도 불교에서 공인되는 가장 오래된 주석서는 3세기에 지어진 *Sutta-nipāta*에 대한 주석 *Mahanidessa*라고 한다.

인도의 불교 주석서에서 사용되는 방법론과 논변 스타일은 인도의 주석 전통이 또한 그러하듯이 당시 학문의 발달 특히 언어학이나 시문학, 그리고 논리학 등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을 것으로 본다. 인도의 문헌 전통은 주석의 형태를 통해 발전하고 이런 문헌과 사상적 전통이 연속성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공통의 텍스트, 즉 근원(*root*)이 되는 텍스트를 전거로 하여 여러 다른 주석들이 저술되기 때문이다. 인도에서는 학파에 따라서 주석 전통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주석의 종류와 타입도 여러 가지이며 그들 간의 위계도 밀물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종류를 열거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성전을 가리키는 수트라(*sūtra*, 경(經))과 개인의 의식적인 저술을 가리키는 샤스트라(*śāstra*, 논(論))가 있다. 또한 경과 논에 대한 주석으로 브하시야(*bhāṣya*, 소(疏)), 단어나 구절의 의미에 대해 자세하게 해설(*gloss*)하는 형태의 주석인 비야키야(*vyākhyā*), 또는 티카(*tīkā*) 등이 있다. 샤스트라의 핵심 부분은 때로 시(詩)의 형태로 저술되기도 하여 이것을 카리카(*kārikā*)라고 하고 이것을 해설하는 것을 브하시야(*bhāṣya*)나 또는 브리티(*vr̥tti*)라고 한다.<sup>7)</sup>

예를 들어 본다면, 저 유명한 바수반두(*Vasubandhu*, 세친(世親))가

---

Forum, vol. 5, London: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1997 (Robert Buswell, *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Wōnhyo's Exposition of the Vajrasamādhisūtra*,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에서 재인용).

7) Luis O. Gómez, “Buddhist Books and Texts: Exegesis and Hermeneutics,” *Encyclopedia of Religion*, Second Edition, edited by Lindsay Jones (Detroit: Macmillan Reference USA, 2005), p. 1271.

쓴 『아비달마구사론(阿毘達磨俱舍論)』은 개인이 쓴 논서 라는 점에서 이러한 문헌을 샤스트라(*śāstra*)라고 한다. 그런데 이 문헌은 보통 본인이 스스로 쓴 autocommentary와 같이 읽히는데 이것의 제목은 *Abhidharmakośa-bhāṣya*이다. *Abhidharmakośa-bhāṣya*는 서술식으로 씌어진 해설서로, 이 *bhāṣya* 없이 본문의 *verse*만 가리킬 때 *Abhidharmakośa-kārikā*라고 한다. 후대의 학자 야쇼미트라(*Yaśomitra*)가 쓴 『구사론』에 대한 주석서의 이름은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이다. 또한 세친은 『대승성업론(大乘成業論, *Karmasiddhi-prakaraṇa*)』과 티벳어로만 남아 있는 『연기경석』 등을 지었는데 그 산스크리트어 제목은 *Pratītyasamutpāda-vyākhyā*이다. 이와 같이 *kārikā*, *bhāṣya*, *prakaraṇa*, *vyākhyā* 등으로 불리는 여러 다른 형태의 주석들이 있었다.

#### IV. 동아시아에서의 불교 주석의 종류

Alexander L. Mayer에 따르면 가장 최초의 중국의 불교 주석은 ‘주(註)’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한다. 그 후 ‘소(疏)’가 6~9세기에 발달한 양식이 되었고, 송 대(宋代) 이후는 그 형태가 단순화되고 정형화되었다. ‘소(疏)’는 동아시아 한문 불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석 장르로, 경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주석 류가 대장경 속에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의천의 『新編諸宗教藏總錄』에서부터이다. 의천은 주석 문헌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는 주석 문헌을 대장경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대장경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정착시켰다.

한국의 전통 강원에서는 흔히 경전의 주석서의 가장 중요한 종류로 논(論), 소(疏), 초(鈔) 등을 든다. 논이란 학자에 의해 저술된 전문적 에세이 내지 이론적 저술을 말하는 것이다. 대만에서 편찬된 불교사전인 『불광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소란 ‘경’과 ‘논’에 대한 주

석서를 통칭하는 것으로 또한 의소(義疏)라고도 한다. 또한, “불경의 뜻과 이치는 깊고 오묘하여 소(疏)가 없다면 확실히 그 뜻을 통해 열어 계도하고 깨닫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글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해석하지만, 글의 지향하는 바를 구분하고, 뛰어남과 열등함을 결정하여 그 뜻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故須依文義解之, 分別旨趣, 決擇勝劣, 使無塵滯)”이라고 설명한다. 즉, 주석이란 단지 단어나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석가의 특정 경전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담고 있는 일종의 해석적 행위이다. 이 사전은 동진(東晉)의 축법숭(竺法崇)이 쓴 『법화의소(法華義疏)』나, 축도생(竺道生)이 쓴 『법화경소(法華經疏)』 등을 소(疏)의 예로 들고 있다. 소(疏)와 비슷한 것으로 초(鈔)가 있는데, 초란 소의 간단한 형태를 말하며, 본 소를 따라가면서 간단히 해석을 가하여(注解 疏文), 경, 소의 깊은 뜻을 간단히 알 수 있게 한다. 이외, 소의 성격에 따라 장소(章疏), 의소(義疏) 등의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장소(章疏)란 편과 장을 나누어 가르침의 의미를 논한다는 뜻이고, 경론의 글과 구절들을 하나하나 끝까지 해석한 것을 의소라고 한다. 이 두 가지를 한데 묶어 동아시아에서 쓰여진 불교문헌을 통칭하여 ‘장소(章疏)’라고 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종론(宗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지와 다른 종지와 의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어서 논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소와 초, 기 등이 자신이 주석하고 있는 문헌의 틀을 따라 가면서 자신의 교학적 견해를 표출함에 반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이론을 토로하는 주석들도 있다.<sup>8)</sup> 그 외 중국의 교학불교에서는 ‘현의’, ‘현소’, ‘유의’, ‘현론’, ‘연의’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주석들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智顓(538-597)의 『妙法蓮華經玄義』, 『維摩經玄疏』, 吉藏(549-623)의 『法華遊意』와 『法華玄論』 등을 들 수 있다.<sup>9)</sup>

8) 『불광대사전』, p.4739, p.3167 등.

9) Tao Jin, “The Formulation of Exegetical Issues and Writing of Exegesis in Early *Qixinlun* 起信論 Commentaries: An External Tradition,” Unpublished

여기에서 한국 불교의 대표적 학승이며 실천가이고, 또한 동아시아의 불교 이론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원효(元曉 617-686)의 저술에서 불교 주석 문헌의 종류와 그 중요성, 그리고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원효는 100종에 가까운 저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중 22가지가 남아 있다.<sup>10)</sup> 그런데 『한국불교전서』 제1책에 수록되어 있는 원효의 현존 저술 목록 22가지 중 15가지가 주석서이고 7가지가 자신의 독자적인 저술, 즉 논서이다.<sup>11)</sup> 주석서가 아닌 저술들도 그 내용이 고도의 이론적 복잡성을 가지며, 문단 배열 등에 있어 정형적인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현학적인 단어들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주석적(exegetical)이다.<sup>12)</sup> 원효가 주석 또는 그런 형식을 가진 저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종교적 통찰을 표현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통해 동아시아의 지식 전통을 넓게 살펴볼 때 이러한 주석 문헌의 지식전통의 담지자로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원효가 찬술한 주석서들의 종류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다음의 여러 종류가 있다. 『한국불교전서』에 실려 있는 22종의 목록 중에서, ‘논(論)’이 1종, ‘종요(宗要)’가 5가지, ‘소(疏)’ 6가지, 별기(別記), 요기

---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in 2005.

- 10)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서는 원효의 저술이 44부 82권이 있다고 한다. 조명기의 『신라 불교의 이념과 역사』에서는 98종류를 열거한다.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편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에는 86종류의 서목을 열거하고 있다.
- 11) 현존하는 원효 저술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大慧度經宗要; 法華宗要; 華嚴經疏 卷三并序; 本業經疏 卷下并序; 涅槃宗要; 彌勒上生經宗要; 解深密經疏序; 無量壽經宗要; 佛說阿彌陀經疏; 遊心安樂道; 菩薩戒本持犯要記; 梵網經菩薩戒本私記 卷上; 金剛三昧經論; 大乘起信論別記; 起信論海東疏 并刊行序; 二障義; 判比量論(斷簡); 中邊分別論疏 卷三; 十門和淨論(斷簡); 發心修行章; 大乘六情懺悔; 彌陀證性偈(1編).
- 12) 이런 점에서 버스웰은 원효를 기본적으로 주석가로 부르며, 그러나 그것은 학자와 종교인으로서의 원효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효가 자신의 철학적 종교적 통찰을 표현한 주된 수단이 주석이었다는 것을 말할 뿐이라고 한다. Robert Buswell, *ibid.*, pp. 28-29.

(要記), 사기(私記) 등의 ‘기(記)’가 3종, 그리고 7가지가 주석이 아닌 독립 저술이다. 이중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만이 유일한 논문이다. 동아시아에서 ‘論’이란 인도의 대승 논사들이 지은 독립적인 논문(sāstra)를 말하며,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은 주석서임에도 불구하고 ‘논’으로 불리는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원효의 이 저술의 당시의 지위를 말해주는 것이다.

“종요(宗要)”란 경전에 드러난 사상을 총체적으로 해석해 보이는 것이다. 원효의 『열반종요(涅槃宗要)』와 『법화종요(法華宗要)』 등의 중요 장르는 그의 화엄, 여래장, 유식 사상의 틀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안수 있는 중요한 문헌들이다. ‘소(疏)’는 보다 정형적인 형식의 주석이다. 예를 들어 『대승기신론』에 대한 소인 『해동소(海東疏)』는 한 줄 한 줄을 설명한 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에, ‘요기(要記)’, ‘별기(別記)’, ‘사기(私記)’ 등은 자신이 관심을 갖는 구절에 보다 중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구절은 주석을 달지 않는 등, 보다 자유로운 형식을 취한다. 자유롭다는 말은 소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다는 말이며, 개인적인 기록 내지 학습 노트와 같아 독자를 의식한 친절함이 덜하다. 예를 들어, 계율서인 범망경보살계본에 대한 원효의 주석인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주석하나 어떤 부분은 전혀 주석을 달아 놓지 않아, 주석으로서 균일성이 없고 전체 문헌의 뜻을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sup>13)</sup>

## V. 주석의 구조

도안(道安, 312-385)은 경전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내용에 따라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그리고 유통분(流通分)의 세 가지,

13) 본인은 이 사기를 영어로 번역하였으며, University of Hawaii Press에서 다른 원효의 계율관련 문헌들과 함께 출판될 예정이다.

즉 삼분(三分)으로 나뉜다고 했다. 이러한 삼분의 해석법은 법운(法雲)이 『법화경』에 대해 주석한 『법화경의기(法華經義記)』을 쓰면서 그 해석 틀을 처음 적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삼분(三分)’의 경전 해석법은 그 이후의 주석서들에서 경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데에 그 틀을 제공하였다. 우선 서분(序分)은 경의 전체의 취지를 말하는 서문에 해당한다. 즉 경이 시작되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와 그 외 경을 설법한 시간과 장소, 설법의 대상 등의 여러 상황을 서술하는 부분이다. 정종분(正宗分)이란 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붓다의 설법 내용을 전하며 한 경전의 중심부분을 이룬다. 유통분(流通分)이란, 경을 끝내기 전에 이 경의 공덕에 대하여 말하고 널리 유통시킬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일컫는다. 즉 이 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떻게 불도를 이루었는지 어떤 공덕이 있는지를 예시하고 앞으로 이 경을 읽는 사람들이 얻을 공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경전의 말미를 장식하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큰 덩어리로 나누고 난후, 주석서는 일차적으로 경전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으로 주석 형식의 기본을 삼고 있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먼저 소개하고 또 그러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 구절 들 또는 보다 큰 단위로서 한 섹션에 대해 설명한다. 단어에 대한 소개는 특정 단어에 대한 동의어를 제시하기도 하고, 사전적 정의를 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단어의 어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기도 한다.

원효의 주석서들을 예로 들어보면, 원효의 주석서들은 그 시작에서 다음과 같은 정형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그 속에서 먼저 전체의 분과를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법화중요』는 “將欲解釋此經，略開六門分別。初述大，次辨經宗，三明詮用，四釋題名，五顯教攝，六消文義。初述大意者 …”라고 하고, 『범망경보살계본사기』는 “將釋此經，略作兩門分別。一者釋題名字，二者入文解釋。初釋題名者 …”라고 시작하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此經略開四門分別。初述大意，次辨經宗，三釋題名，四消文義 …”라고 시작한다. 즉, 원효는 주석을 쓰는데 있어

서 중요, 사기, 론에 관계없이 먼저 4문, 6문, 2문 등으로 분류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주석을 시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석가들은 자신의 독특한 주석의 형식적 내용적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므로, 스타일의 정형성을 가지고 주석자가 누구인지 추정하는 수단도 된다. 현대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불교 경전들은 모두 컴퓨터로 입력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문장 구조의 분석이 가능해 지고 나아가 저술의 진위여부도 판가름하는 경우도 있다.

이상의 주석의 구조를 살펴본다면 주석자는 한 개념어나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평이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 같지만 이러한 간단한 스타일 속에 복잡한 해석학적 구조가 숨어 있다. 즉 각 섹션의 부분들은 주석서 전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Robert Buswell의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의 주석 문헌으로서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특정 개념이나 구절에 대한 주석을 의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주석은 다른 모든 불교 주석들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 첫째, 각 섹션(section)과 파트(part)와 디비전(division)들이 어떻게 다른 부분들과 어울려 한 목소리를 내는지를 보이고, 둘째로 이 하나의 문헌이 전체의 불교의 경전적 가르침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를 보인다. 학자들은 흔히 주석서에서 특정 개념이나 구절에 대한 자세한 해석에 보다 주의를 하지만 실제로 주석은 그 형식과 구조에 있어서 한 문헌의 메타언어(metalanguage)이며 이러한 점에서 더욱 중요성을 갖는 것이다. 주석을 통해 주석가들은 한 경전과 그 경전이 불교의 교학적 심층체계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자신의 거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원효가 『금강삼매경론』 속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미션은 실제로 거대한 것으로, 대승불교 전체가 이 한 경전 속에 드러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sup>14)</sup>

우리는 주석서를 읽을 때 그 책이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그 구조는 어떤지, 그 주석서를 통해서 수행으로 나가는 방법론이 어떻

14) Buswell, *ibid.*, p. 29.



게 기술되고 체계화되는지, 각 장과 절은 어떻게 서로 내적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주석의 분석 틀로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과판(科判)이다. 이 속에서 주석가들은 장과 절을 분류하고 전체 문헌의 구조를 분석해 보인다. 문헌의 구조를 분석하는 틀로서, 과판 외에도 과분(科分), 분과(分科), 과단(科段), 과절(科節), 과장(科章), 과경(科經), 과문(科文) 등의 이름이 사용된다고 한다.<sup>15)</sup> 한국의 전통 교학에서는 과문(科文)과 과단(科段)이라는 표현을 주로 쓰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봉선사의 학장인 월운(月雲) 스님은 경전 주석을 분석한 것을 과문(科文)이라고 부르고 그 각각의 제목을 과목(科目)이라고 부른다.<sup>16)</sup> 이 과목(科目)은 각 구절 별로 붙는 것으로 하나의 절 속에 하나의 교리적 논변을 담고 있는 불교 주석의 특징을 따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학인들이 주석서를 사용하여 경전이나 논서들을 읽고 연구할 때 주석서의 과판을 따라 주석서 속에 들어 있는 분석적 형식을 따라가면서 학습하는데 과판은 일종의 학습 도구가 된다. 여기서 불교 교학 전통에서 주석서가 가지는 교육적 학습서로의 기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전통 교학에서 주석서란 한 학자의 이론적 학문적 결실과 연구 성과를 천명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교육 수단으로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통 강원 교육은 주석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학인들은 주석서를 통해 불교 경전과 논서들을 학습하고 불교의 교학 전통을 습득하게 된다. 과문과 과목 등을 분석적 틀을 통해 전체 문헌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활동을 수행해 나간다. 주석서가 가진 형식적 정형성의 틀 속에서 불교의 이론적 사상적 문헌들을 논리적이고도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해석하는 교육방

15) Tao Jin, "The Textual Organization (*Kepan* 科判) of *Qixinlun* 起信論 in Its Early Commentaries: An Instance of Buddhist Scholasticism,"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meeting in 2006.

16) 李仁惠, "漢譯論書 翻譯方法에 관한 小考," 『大藏經의 世界』 (東國易經院, 1999) 참조.

법을 통해, 승려들은 경전 이해에 대한 독특한 시각과 방법론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주석들은 분석적으로 복잡성을 지니며, 그리고 그 형식과 내용, 그리고 맥락에 있어서의 내적 관련을 보인다. 즉 주석서는 과관을 통해서 주석하는 문헌의 개요 뿐 만 아니라 유기적인 계층 구조 속에서 다른 단계에 속하는 장, 절 들 간의 관계를 보여준다. 장, 절 간의 관계를 합리화 할 뿐 아니라 계층구조의 아래에서 좀더 통일된 전체로 나아가는 구조로 통합한다. 이러한 분류와 조직의 과정을 거듭하여, 마지막에는 주석하는 문헌은 뚜렷이 계층화되어 있지만 통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조직된 문헌이 되어 고도의 정치한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sup>17)</sup>

상이한 종류의 여러 주석서들 사이의 과관의 차이를 분석해 보면 각 주석가 들의 지향점, 사상적 입장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신론』의 4대 주석인 담연, 혜원, 원효, 법장의 주석들의 서분의 내용을 과관을 통해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표를 만들어 보면, 각각의 주석가 들은 『기신론』 서문의 첫 구절들을 불보, 법보, 승보의 각각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 배대하는 바는 달리하면서 각각 『기신론』 서문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歸命盡 十方	最勝業 徧知	色無礙 自在	救世大 悲者	及彼身 體相	法性眞 如海	無量功 德藏	如實修 行等
曇延		佛寶					法寶	僧寶
慧遠		佛寶				法寶		僧寶
元曉		佛寶				法寶		僧寶
法藏		佛寶				法寶		僧寶

나아가 주석가 들은 『기신론』의 내용 전개를 따라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교리의 틀을 사용하여 자신의 교리적 중심점이 점점 높은

17) Tao Jin, *ibid.*, 2006.

18) Tao Jin, *ibid.*, 2005, Appendix.

단계로 전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장은 『기신론』 본문의 전개를 보살도의 실천과 배대하여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등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sup>19)</sup> 즉 주석가 들은 자신이 의도한 형식을 통하여 자신이 표방하는 사상적 입장을 그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일종의 전략을 썼다고 할 수 있다. 주석이라는 특이하면서 정형적인 형식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고자 하는 주석가 들에게는 이런 전략은 필연적인 것이었을 것이다. 주석이라는 불교 문헌 장르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을 주목하고 주석의 형식적인 분석을 통해 내용이 함축하는 바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 VI. 결어

불교 문헌은 단순히 한 종교의 교의를 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경전을 찬술하고 연구하는 담지하고 신앙했던 사람들의 문화와 문명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광범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서술 속에서 끄집어 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불교는 인도에서 탄생하였으므로 불경 속에서 우리는 인도의 문화적 맥락과 그 당시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하는 자취를 알 수 있으며,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해져 동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되어 한역 대장경이 성립해 가는 과정을 통해 그 문헌들에는 각 지역의 문화적 사상적 특성도 반영된다.

불교 문헌들은 그 자체에 각 지역의 문화적 사상적 정보를 담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들 문헌에 대해 끊임없이 보태지고 추가되는 주석의 전통을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론과 해석이 탄생할 수 있게 하여 동아시아의 지적 전통에 역동성을 가져왔다. 경전과 주석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불교의 문헌 전통이다. 이런 점에서 동아시아

19) Tao Jin, *ibid.*, 2006.

아에서 유교나 불교 사상은 주석을 통하여 전승되고 발전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보듯이 주석서는 단지 한 구절이나 한 개념의 뜻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과관을 통해 각 단락들과 장, 절 등이 주석 내의 다른 장, 절 등과 어떻게 어울리는지를 보여준다. 경이란 일종의 의제 (agenda)를 정하는 것과 같으며 이에 반해 주석이란 이러한 아젠다를 놓고 토론을 벌여 나가는 것과 같다.<sup>20)</sup> 주석 쓰기라는 것은 불교가 행해지는데 있어서 중요한 형식이며, 주석가는 자신이 주석하는 경전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종교적 메시지를 대가적으로 드러내고 구현한다.<sup>21)</sup> 불교에서 주석서란 모호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경전의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만 아니라 자신들이 속한 학문적 입장을 다른 이들과 차별화 시키는 수단이었다. 주석가들은 주석 저술이라는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문 전통을 구축해 나갔다.

대장경에는 소위 불설이라고 간주되는 경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수많은 주석 문헌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보아서도 불교 전통에서 주석의 지위를 알 수 있다. 불교 경전의 총칭인 대장경이 경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주석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불교의 지식 전통의 중요한 특징을 말해 주는 것으로, 교리와 이론에 재해석을 가하는 사상적 전통은 주석이라는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주석이란 단지 경전에 대해 부수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형식과 불교적 통찰을 가지고 경전을 새로이 소개하는 적극적 수단이었다. 한 경전이나 논서를 어떤 주석에 따라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학파가 나뉘고 전통이 바뀌었다. 특히 동아시아의 교학 불교에 있어서는 하나의 특정 주요 논서에 대해 여

---

20) Buswell, *ibid.*, p. 36.

21) Jörg Plassen, "Another Inquiry into the Commentarial Structure of Wŏnhyo's Works, Focussing on *Kūmgang sammaegyŏng non*," *Proceedings of the Twenty-First Conference of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ed. Antonetta Bruno and Federica Baglioni (Frascati: AKSE, 2003), pp. 270-275 (Buswell, *ibid.*, p. 29에서 재인용).

러 종의 주석서들이 찬술되었으며 이들 주석서들은 이론적 정당성과 권위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의 해석에 도전하였다. 불교의 주석 문헌들은 이와 같이 과거의 불교의 이론적 사상적 전통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끔 하는 중요한 수단을 제공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된 불교 문헌 장르로서 주석서는 이러한 이론적 발전이 가능케 한 기제로서 오랫동안 불교의 사상 전통 속에서 작용하였다.

## ABSTRACT

The Buddhist Commentarial Tradition and it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Cho, Eun-su

Traditional Buddhist scholarship has been passed down through an abundance of texts that are classified depending on their contents and structure. These include scriptures (*sūtra*), treatises (*śāstra*), and a wide variety of commentaries on the same, including commentaries (*so*), brief commentaries (*ch'o*), and expositional notes (*ki*). The Buddhist commentarial tradition infused a potent dynamic into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East Asia through its development of nove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Entirely new schools were created and interpretive traditions were forever altered by the dint of commentaries. As a major factor in the process of re-interpreting preexisting theories and doctrine, the commentarial tradition should thus not be subsumed within a secondary position to scriptural authority, but rather it should represent a challenge and impetus towards change within the tradition of scriptural scholarship. This paper illustrates the varieties of commentaries, their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their significance, giving examples of various commentaries by Wonhyo and other commentators in East Asia. Furthermore, commentaries are not only a method of making sense of the key phrases and terms within the scriptural literature, but also an important means of differentiating the commentators' own

doctrinal positions from others. Through the vigorous and complicated practice of such exegetic works, many scholars were able to establish their own unique scholarly world and heritage.

**Keywords:** Buddhism, traditional scholarship, exegetical literature, commentaries, scriptures, treatises

